

주요공지

< 성전보수 기금마련을 위한 기도 >

주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시며,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낙후된 성전을 위해,
기도와 정성을 모아,
성전 보수 기금 마련을 준비합니다.
저희의 계획과 수고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며,
이 길을 함께 걷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고단한 이민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의 평안으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금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저희의 정성이 모여,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보금자리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성전보수기금 약정/납부 현황 *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1	주일학교	500	31	박재영	1,500	61	오석미	1,000	91	임영자	1,000
2	유스그룹	400	32	박정훈	1,500	62	오진아		92	장문국	1,000
3	반석회	2,000	33	박정희	100	63	오선아	2,000	93	장수지	1,000
4	이스트브론스윅 구역	1,167	34	박화성	1,000	64	오현아		94	장종현	400
5	성모회	5,000	35	방숙자	400	65	오용운	2,000	95	전광수	1,000
6	Vesta-Oh LLC	5,000	36	배인경	500	66	오현주 (부제님)	12,000	96	정명숙	300
7	강식	1,200	37	백상현	1,500	67	우성현	1,000	97	정진오	1,000
8	곽신규	1,000	38	백영숙	1,000	68	우영인	1,000	98	조순자	300
9	곽율리안나	200	39	변상민	1,000	69	유병기	3,000	99	조인	1,000
10	김도용	500	40	변상원	1,000	70	육순재	5,000	100	채희백	5,000
11	김삼식	1,000	41	변태용	4,700	71	윤석로 (부제님)	1,000	101	최경하	1,000
12	김성일	1,500	42	서경호	1,000	72	윤승현	1,000	102	최영옥	1,000
13	김수완	5,000	43	서정근	1,500	73	윤준희	5,000	103	최영찬	2,000
14	김순옥	1,000	44	서현주	1,000	74	이광호	3,000	104	최완준	1,000
15	김안나	1,000	45	성낙순	500	75	이기순	500	105	최승웅 (부제님)	5,000
16	김영필	2,000	46	성낙철	1,000	76	이막동	500	106	최진호	1,000
17	김정숙	500	47	성순영	500	77	이문식	1,000	107	최현지	2,000
18	김태경	600	48	성준엽	1,000	78	이보현	1,000	108	최골롬바	300
19	김진	1,000	49	손경진	300	79	이성문	1,200	109	추승호	1,000
20	나채국	1,000	50	손영렬	1,000	80	이숙희	500	110	토레스 은식	2,000
21	나한복	1,000	51	손영수	1,000	81	이용문	2,000	111	하건철	1,000
22	문형곤	100	52	손종철	3,000	82	이용범 (신부님)	3,000	112	한상철	1,000
23	민병집	2,400	53	손홍구	1,500	83	이재구	1,000	113	한크리스토퍼	1,000
24	박규희	300	54	신준호	1,200	84	이재서	1,000	114	허종	1,000
25	박기호	1,000	55	안을봉	1,000	85	이중권	1,500	115	황분숙	500
26	박덕화	500	56	안청자	500	86	이준원	100	116	황태진	3,000
27	박동준	300	57	안현정	1,500	87	이호용	1,000	117	익명 (2)	2,000
28	박락준	2,000	58	양영길	1,000	88	임문수	500	118	익명 (2)	400
29	박병태	1,200	59	염기선	3,000	89	임성주	1,000	119	익명 (2)	40
30	박애순	500	60	오경숙	3,000	90	임소라	100	120	미국신자 (75)	100,000

약정금액: \$267,707.43/\$300,000 (89.24%), 납부금액: \$237,765.43/\$300,000 (79.26%)

사순 제3주일

2026년
3월 8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화-금 미사전 목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edisonkcc@gmail.com
근무시간: 수~금
(10:30AM~4:3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오현주 요한

은퇴/종신부제
최승웅 미카엘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염기선 베드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 이번 주 전례안내 >

제 1독서 탈출기 17,3-7

화답송 시편 95(94),1-2,6-7,11,12,7,9(© 7과 8)



후렴.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마라.

제 2독서 로마서 5,1-2,5-8

복음 환호송 요한 4,42,15 참조

○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복음 요한 4,5-42

성가 입당 121 봉헌 213, 342 성체 176, 153 파견 117

- * 미사지향 (연미사)**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권숙자(요안나) - 최세레나 & 최미카엘
 - 오용덕(헨리코) - 가족, 박안나
 - 윤재은(베로니카) - 가족
 - 정경숙(아가다) - 성안드레아
 - 이규호님 영혼을 위하여 - 이규순(미카엘)가족
 - 김진철(사도요한) - 가족
 - 김중호(베드로) - 허정(아나스타사)
 - 조정혜(릿다) - 최현지(안토니아) 이소희(사라)

- 최정인 신성희(엘리사벳) - 가족
- 박병준 - 김영필(안토니오)
- 김상기(요셉) - 김정희(레지나)
- 성옥금(마리아) 김지영(유진)
- 박병희
- 최예생
- 이금자(비비안) - 김스텔라
- 이은레(테레사) - 박두선(요셉)

-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글라라) - 가족, 이광호(다니엘)
 - 윤벨리 - 이광호(다니엘)
 - 김영필(안토니오) - 가족
 - 채미영(테레사) - 박덕화(요안나)
 - 방숙자(마리요안나) - 가족
 - 황혜선(루시아) - 오경숙(세실리아) 이서형(요안나)
 - 이광호(다니엘) 이정옥(짓다) - 이헬레나

- 김경호(알렉산드로) - 가족
- 성순영(라파엘라) 이마이클
- 이홍례(마리아) - 성미카엘라
- 이인숙(세실리아) - 김유리아나
- 이수영(안드레아) 학사님 - 박안나
- 오경숙(세실리아) - 이소희(사라)
- 이지민(카타리나) 가정

-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1,339(132명)
 - 교무금.....\$3,500
 - 박재영(3~4) 김영필(3~4) 오용운(2) 박병태(3) 염기선(3)
 - 장수지(1~3) 김순옥(1~3) 채희백(3~4) 이광호(3~12)
 - 하건철(1~2) 박정화(3~4)

-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거**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쥘워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고,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3. 바다 청소
 4. 성당안의 가전제품, 큰가구, 규격외의 부피가 큰 쓰레기를 버릴시에는 반드시 사무실과 상의후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세요.
 5. 성당건물을 사용한 사람은 나올때 반드시 불을 끄고 문을 잠가주세요.
 6. 성당밖에 담배꽂이를 버리지 마세요.

- * 원할한 주보 제작을 위해 미사 지향 신청 및 주보 공지 사항을 매주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 * 세무공제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장에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건철(안토니오) 김영필(안토니오) 염은미(클라라)
 - 곽 율리안나 김삼식(베드로) 김정선(스텔라)

- * 2차헌금 (3/8): 유틸리티**
- * 2026년 사순판공 일정안내**
 - 3월8일(주일): 나베다 신부님 / 10:10~11:20 (미사, 강론, 미사후 성사)
 - 3월15일(주일): 손대혁 신부님 / 10:10~11:20
 - 3월 22일(주일): 김영민 신부님 / 10:10~11:20(미사, 강론)
- * 3월 십자가의 길 (오전 11시 시작)**
 - 3/8 야고보회 (이용문, Charlie Skriver, Kevin Park)
 - 3/15 반석회 (양영길 한상철 한안나) 3/22 대건회

- * 빵과 포도주 봉헌**
 - 3/8 오경숙 박진아 3/15 최혜자 이순분
 - 3/22 서정근 서영숙 3/29 이희숙 황문숙

- * 친교 봉사 일정**
 - 3/15 노스에디슨 4/19 사우스브런스워 5/17 썸머셋
 - 6/21 에디슨 7/19 올드브릿지 8/16 이스트브런스워
 - 9/20 피스브릿지 10/18 노스브런스워 11/15 럽거스
 - 12/20 먼로

- * 2026 Bishop's Annual Appeal**

메타천 교구내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6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본당 목표금액은 \$39,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됩니다.

- * 테네시 농작물 주문하신 분들은 친교실에서 픽업해주세요. 담당자 : 최정원(레지나)**

- * 예비교우 수련식**

지난 주일에 수련식을 마친 Kevin Park 형제님이 세례(부활 성야)를 받기 전, 사순 시기 동안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기도와 참회, 구마 식(악을 물리치는 예식)을 거행하는 중요한 단계적 예식인, 제1, 2, 3 수련식을 사순 제 3, 4, 5 주일 미사 중에 가집니다. 이는 영적인 정화와 훈련의 의미를 가집니다. 교우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 쿠리아 월례회의**

일시/장소: 3월 8일(주일) 미사후 / 큰회의실

- * 전례부 월례회의**

일시/장소 : 3월15일(주일) 미사후 / 친교실 소회의실

- * 올드브릿지 구역모임**

일시/장소 : 3월15일(주일) 미사후 / 친교실 대회의실

- * 피스브릿지 구역모임**

일시/장소 : 3월15일(주일) 미사후 / 친교실

- * 노스에디슨 구역모임**

일시/장소 : 3월 21일(토요일) 1시 / 오경숙 세실리아 자매님 자택

- * 반석회 모임**

일시/장소 : 3월28일(토요일) 12시 / 성당 친교실

- * 아치에스 행사**

일시/장소: 3월 29일(주일) 미사후 / 성당 레지오마리아에 연중 가장 중요한 큰 행사로서, 래지오 전단원(행동 및 협조단원) 참석하시어, 성모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예정된 본당 행사 및 일정 (Upcoming Event)**
 - 4/5: 부활포장마차 9/27: 야외미사

- * 제 1독서 탈출기 17,3-7**

그 무렵 백성은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가 우리 자식들과 가족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거라. 나일 강을 친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렘의 바위 위에서 네 앞에 서 있겠다. 네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비하였다 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싸와 트리바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 제 2독서 로마서 5,1-2.5-8**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 복음 요한 4,5-15.19ㄴ-26.39ㄱ.40-42**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족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렀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사람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들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새로운 주교님을 모시기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영원한 대사제이시며,
착한 목자이신 주님,
저희 메타천 지역 교회에 내려주신,
수많은 은총에 감사하나이다.
저희의 제5대 교구장,
제임스 주교님을 보내주시어,
그의 여러 은사를 통해,
백성들을 보살피게 하셨음에 감사하나이다.
이제 저희 메타천 지역 교회를 위한,
새로운 주교 선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교황 레오 14세 성하께,
지혜로운 분별력을 주시고,
다음 주교님을 선발하시는 과정 중에,
현명한 조언자들이 함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새로 오실 주교님이,
신성한 스승이신 당신을 더욱 닮게 하소서.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의 다음 주교님이,
당신과 당신의 교회를 향해,
불타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분이 지혜와 충실함,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중부 뉴저지 전역에,
신앙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며,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을 갖게 하소서.
주님의 어머니이자 저희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새로운 주교님과, 그에게 맡겨진 양 떼를,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소서.
당신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